

# “돼지고기도 못믿겠다”

## 칠레산서 다이옥신 잇따라 검출...식품 불신 확산

수입산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에서 대표적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식품 불신이 돼지고기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소비자들 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3일 칠레에서 수입된 병동 돼지고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결과 25.9에서 2.3~15 피코그램(pg/g fat)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를 최대 7배 이상 초과한 양이다. 유럽연합(EU)의 잔류허용기준치는 1pg이다.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된 것은 지난 2003년부터 모두 네 번째다. 검역 당국은 허용기준치 이상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폐기처분과 함께 같은 컨테이너로 수입된 돼지고기도 모두 처분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회수 대상 물량 104.7t 중 78.8t은 이미 검역을 통과해 유통

▲다이옥신(Dioxin) = 암·기형·피부병·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급성 독성 물질로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극물이자 ‘환경 호르몬’으로 불린다. 특히 PVC 제재가 포함된 폐기물과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발생하는 물질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대부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에 포함된 다이옥신을 섭취하는 경우다.

에 들어간 상태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 이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수입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돼지고기도 못믿겠다’는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에 이어 수입 돼지고기 물량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3만여t이 수입되고 있다.

더구나 돼지고기의 경우 올 12월

22일부터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해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현 상황으로는 수입산 여부를 알 방법도 없다. 또 칠레산 뿐 아니라 돼지고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돼지고기 소비 감소로 인한 농가와 영세음식점 타격도 예상된다.

주부 김모(47·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미국 쇠고기 파동 이후 가족들과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는데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니 도대체 뭘 믿고 먹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한숨지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돼지고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여·45)씨는 “최근 쇠고기 문제로 얻은 반사작용으로 손님이 20% 가량 증가했는데 이번 다이옥신 검출로 자칫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칠레의 모든 작업장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조선대 교직원,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원 30여명은 23일 조선대 설립동지회기념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탑 훼손행위는 대학 설립의 역사를 짓밟는 테러”라고 주장했다. /최현배기자 choi@

## ‘조선대 설립기념탑 훼손’ 본격 수사

조선대 학원민주화 운동의 상징 조형물인 설립동지회기념탑 훼손 사건(본보 23일자 7면)과 관련, 경찰이 목격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동부경찰은 23일 기념탑이 주말과 휴일인 지난 19, 20일 두 차례에 걸쳐 파손된 것으로 보고, 사건 당일 대학에서 근무했던 경비담당자와 관리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조선대 정문에 설치된 차량인식용 카메라에 촬영된 자료 중 사건 당일 촬영된 분량을 확보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

동부경찰 한 관계자는 “현재는 우발적인 의도적인지 구분할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 의도적이었다면 조만간 범인의 윤곽이 들어 날 것”이라며 “조선대 관계자들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차분히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교직원,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탑 훼손행위는 대학 설립의 역사를 짓밟는 테러”라고 규정했다.

/정상필·안현주기자 camus@

## 장성 극기훈련 중학생

### 저수지에 빠져 중태

23일 오후 6시5분께 장성군 북이면 오희저수지에서 극기훈련을 하던 전북 익산 모 중학교 학생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은 구조됐으며 뒤늦게 발견된 김모(14)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학생 160여명은 이날 장성 홍길동청소년수련원 인근에 있는 이저수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극기훈련을 하던 중이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 ‘정운천 통닭’ 해명 빈축

### AI 파동 땀 났다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촛불집회 진압에 동원된 전국 전경들에게 냉동 닭과 전복을 보내 논란(본보 23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사용된 예산 2억여원은 ‘마사회 특별적립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농업인 후계 인력 장학사업,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돼있다. 농림식품부가 이 기금을 이용해 닭이나 전복을 대량 구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식품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의경들에게 닭과 전복을 보내 준 것은 현우 소비촉진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축산물 소비촉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것”

이라고 해명했다. 더구나 현재는 AI가 잠잠해지고 닭·오리 최대 성수기를 맞아 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닭·오리 수백만마리가 폐사될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과 서 농가를 위해 대량구매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전복을 대량 구입 것은 적립금의 성격에 비춰봐도 어긋난다. 결국 ‘촛불집회 막은 전경 위로용’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마사회 적립금을 통해 농산물을 대량 구매할 적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농·어가를 돕는 것은 시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동욱·안현주기자 ahj@

## 軍해안초소 붕괴

### 포항서 3명 사망

경북 포항의 해안 초소가 한밤중에 붕괴돼 경계근무중이던 군인 3명이 숨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새벽 0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동매 1리 해안가 절벽에 위치한 해병대 초소 지붕이 붕괴돼 초소 내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주모(22)상병과 이모(20)이병 등 군인 3명이 매몰 또는 추락해 모두 숨졌다. 부대 측은 유족들과 협의해 이들 3명에 대해 사단장장(葬)으로 영결식을 치르고 국립현충원에 안치할 계획이다.

사망한 주 상병은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 가족들이 살고 있으며, 동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학년 재학생 중 해병대에 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병 등 2명도 대학에 다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입대했다.

/이종행기자 galee@·연합뉴스

“초등교 신설 철회 알고도 속였다” vs “철회 가능성 충분히 알렸다”

# 아파트 입주예정자-시공사 논쟁

오는 10월 입주예정인 광주시 북구 동림2지구 H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놓고 입주 예정자와 시공회사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건설회사가 분양 당시 교육청의 학교 신설 계획이 이미 철회된 것을 알고도 마치 학교가 들어설 것처럼 입주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설회사는 “학교 신설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렸다”며 맞서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인 박모(39)씨는 “시공사인 H사가 지난 2005년 9월8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로부터 단지 내 학교인 가칭 광림초교 신설 계획 취소 공문을 받고도 2006년 3월 분양하면서 입주민들에

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분양 받기 1년 전 이미 학교신설 계획이 취소됐는데도, 시공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며 “시공사 측의 모집광고와 내용이 다른 만큼 계약해지를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공사인 H사는 분양 전 고객에게 모집광고와 계약서, 팸플릿 등을 통해 학교 신설 철회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공지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분양 당시 계약서에 ‘광림초교를 신설할 계획이나 광주시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인근 학교로 공동배정 될 수 있다’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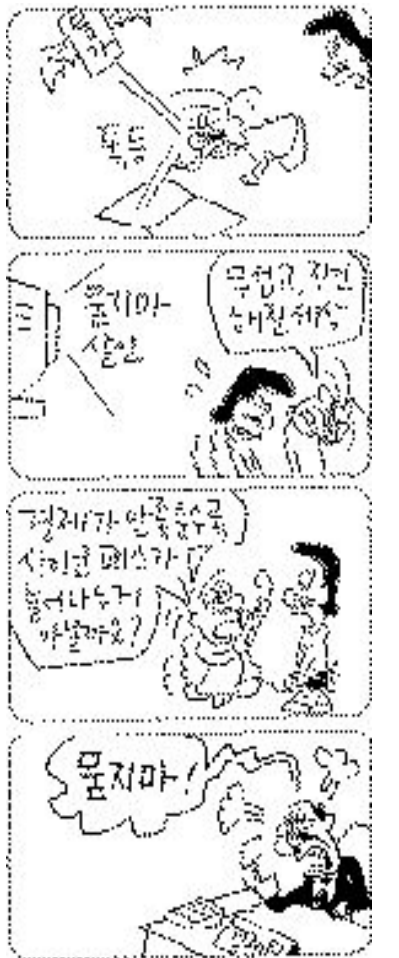
을 담았고, 모집광고와 팸플릿에도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2005년 9월 “당초에는 세대수가 7천 410대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의 신설이 필요했으나 6천34세대로 감소해 광운초교 설립계획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H사에 보냈다.

이에 대해 H사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초등학교 위치를 감안해 단지 계획을 수립했다. 사전 홍보 시 ‘광운초교로 학생 수용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통보했으니 설립취하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추가공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신설이 취소된 부지는 용도변경되지 않고 학교 용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나원침 (7564) 김중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담만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방 : 061) 337-0571

개값 흥정하다 싸움판으로



○삼복더위를 맞아 개고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30년동안 개를 거래해온 개중간상인들이 개값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 급기야 싸움판으로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개 도매업자인 국모(69)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오운동 K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소매업자인 이모(57)씨와 개 6마리를 거래하던 중 대나무 막대기로 이씨의 눈 부위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국씨는 “30년 동안 개를 거래하던 사이인데 자꾸 가격을 낮춰 부르고 욕설까지 해서 화값에 막대기를 휘둘렀다”고 해명했지만, 이씨는 “거래는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높은 가격을 부르기에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눈을 찔렀다”고 진술.

○결국, 경찰은 이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국씨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 /광필기자 kps@

최상 최대의 무릉도원 **장기-계**

무안++장사(장가계) 직항

매주 일·목 7회 편성 ₩ 649,000-  
7/27, 7/31, 8/3, 8/7, 8/10, 8/14, 8/17 출발

폭넓은 고품격! 가격은 **다운!**

GOLF 4명부터 출발가액 ₩ 899,000-

문의: 전남-북 동원여행사 권병, 광주SBS 문화방송 사무원 ■ 문의전화: 060-226-6070